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에스프레소

양지혜
정치부 기자

태평양전쟁 때 미군의 후방 기지였던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선 매년 2월 15일 특별한 의식이 거행된다. 원주민 남성들이 낡은 미군 군복이나 'USA'가 큼지막이 적힌 옷을 입고 대나무로 만든 가짜 총을 메고서 성조기를 들고 엄숙하게 걷는다. 일명 화물 숭배(Cargo Cult) 종교로, 전쟁 당시 미군이 수송기로 실어 날랐던 벼락 같은 풍요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그때의 미군 모습을 흉내 내면 다시 화물이 쏟아지리라는 믿음으로 이런 의식을 매년 치르는 것이다. 미군 기지가 있었던 남태평양 멜라네시아 권역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조기를 성스럽게 다룬다는데, 유독 바누아투에서 2월 15일을 특별히 여기는 이유는 물자를 쫙쫙 뿌려주던 존 프롬(John Frum)이라는 신비로운 미국 남자(미군 수송 담당자였을 수 있다)가 이날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다는 설화에 기반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존 프롬'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인이라면 못 잊을 이름이다.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했던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UN 안보리를 소집해 미군의 참전을 결정했고,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흐름을 뒤바꿨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 협정과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안보 동맹의 기틀을 놨고, 경제 원조도 아끼지 않아 '한강의 기적' 발판을 만들어줬다.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 가난한 캔디를 아낌없이 도와주는, 훤칠한 재벌 테리우스 아저씨가 지금껏 우리가 알던 미국이었다.

'한국에 가다(Go to Korea).' 요즘에야 한국 관광을 뜻하지만, 6·25 전쟁이

멋진 테리우스 아저씨였던 미국
캔디 한국을 향해 독촉장 내민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없어진 세계
한국 정치 인질극은 언제 끝날까

교착 상태에 빠졌던 1952년 가을에는 '골칫거리를 정면 돌파한다'는 의미의 숙어로 통했다. 이 무렵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아이젠하워는 민주당 트루먼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한 세 가지를 'K1 C2', 즉 한국(Korea)과 공산주의(Communism), 부패(Corruption)로 꼽았는데 언급 순서에서 보듯 한국이 으뜸 골칫거리였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대선 투표일을 열흘 앞둔 10월의 어느 날 "I shall go to Korea(내가 한국에 가겠다)"라며 전쟁의 출구 전략을 세우겠다는 연설로 당선을 매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약속대로 당선 직후 한국에 와서 전선을 살폈고, 이듬해 휴전 협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는다. 대의명분보다 돈에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희토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종전 협상은 침략국인 러시아와 둘이서 한다. 요즘 테리우스 아저씨는 약소국을 돕기는커녕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 등을 호시탐탐 노리는 성난 포식자로 변했다. 이런 그에게 '대행민국'을 향한 너그럽고 따뜻한 관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캔디도 세계 10위권의 '머니 머신'으로 컸으니, 방위비도 관세도 전보다 훨씬 많이 내라는 독촉장만 한아름 날아올 판이다.

한국 기업인들이 최근 미국 정부를 찾아가 '70년 동맹'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10억달러 투자" 강권이었다. 미국은 UN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표결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예고했던, 우리가 알던 미국이 없어진 세계(The Absent Superpower)가 성큼 열렸다. 아무리 애타게 성조기를 흔들어도 존 프롬이 다시 나타날 리 없는 2025년. 탄핵의 강과 불신의 바다를 건너 격변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는 일도 이번엔 오롯이 대한의 사람들끼리 해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치의 인질극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93] 혹시 꿈 있어?

Do you have any dreams?

"인생은 용기에 비례하여 축소되거나 확장된다(Life shrinks or expands in proportion to one's courage)."

미국 작가 아나이스 닌은 '아나이스 닌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젊은이에게 인생의 진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잡지 방문 판매를 하며 떠돌이의 삶을 사는 스타(사샤 레인 분)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다. 스타는 거대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고 평온한 작은 인생을 꿈꾼다. 그녀의 인생은 용기를 낸다고 딱히 확장되지 않는다. 영화 '아메리칸 허니: 방황하는 별의 노래(American Honey·2016·사진)'는 스타라는 이름의 떠돌이 소녀로 방황하는 미국 십대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스타는 친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망나니 아버지와 함께 살며 쓰레기통을 뒤져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 십대 잡지 방문 판매원 제이크(샤이아 러버프 분)를 만나고 함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패거리가 된 아이들은 스타의 이름을 본명이라고 믿지 않는다. 스타가 말한다. "엄마가 지은 거야. 우린 모두 죽은 별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It was my mom's idea. She said we're all made from stars. From Death Stars)." 인간의 몸은 별들이 사멸하며 발산한 원소로 구성돼 있다. 스타의 몸은 그토록 광활하고 자유로운 요소로 만들어졌건만 그녀의 현실은 작디작은 시궁창이다.

"혹시 꿈 있어?(Do you have any dreams?)" 스타의 질문에 제이크가 답한다.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Nobody's ever asked me that)." 세상은 이 아이들의 꿈에 관심이 없다. 스타의 가장 큰 꿈은 숲에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거다. "숲속 어딘가에 땅 조금 갖고 싶어. 노예의 퇴직금처럼(Just some piece of land in the woods somewhere. Like the 40acres and a mule)."

영화 번역가

社說

"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총재는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다. "그동안 구조 조정도 하지 않고, 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고착화된 저성장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있는 것만 까먹고 있는 한국 경제의 병(病) 때문이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구조 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조선, 해운업이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최근엔 철강·석유화학이 곤경에 처해 있다. 이런 산업이 앞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대신 각종 금융 지원으로 연명시켜준 탓에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 상태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PF)에 대한 정리 작업을 계속 미루면서 건설 산업도 기약 없는 늪에 빠져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은 기득권 이익집단의 저항과 이들에게 영합하는 정치권의 규제 탓에 태동 단계부터 부진하다. 세계 100여 국이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영업이 한국에선 금지됐다. 이를 우회하는 사업 모델로 개발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회원 170만명을 넘어설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이 금지법을 만들어 사업을 원천 봉쇄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편화된 원격 의료가 한국에선 의사 단체의 저항에 발목이 잡혔다.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변호사 단체가 숨통을 죄고 있다. 반값 부동산 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공인중개사 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반도체 연구 주 52시간 예외는 노조에 막혔다.

정치권은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통해 혁신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게 정치의 할 일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어느 쪽에 표가 많은지만 따진다. 혁신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황당한 규제 환경을 갖기에 이르렀다. 산업의 역사는 혁신 역주행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걸 보여준다. 1%대 저성장은 환자가 약 대신 설탕물을 먹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임명이 또 보류될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마 후보자 문제는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줘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의 길을 터주면 헌재는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극단적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헌재가 그동안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그의 임명보다 더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사건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사건만 서두르다 탈이 난 것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묻자 나흘 뒤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쪽이 짜고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과정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 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가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새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선 전 이 대표 법적 문제 종결 불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5월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에 필요한 상고장 제출 등 각종 법적 절차 기한을 꽉 채우면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죄라면서 재판은 최대한 끌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이 대표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대한민국 다시 구하라

일어서자! 응답하라! 나가자!
《제2의 3.1운동》…
탄핵 기각하라!
구속 취소하라!

일제 대신 중공패권주의와 싸운다
태극기로 온나라 물결치게 하자
《문형배 헌재》 폭주 막을 수 있다

《자유 있는 독립》 지켜라

《1919년 3.1운동》 제106주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인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선언을 되새긴다. 선열들은 《세계의 진운(進運)에 발을 맞춰》라고 천명했다.

106년 후의 우리 세대 역시 자신들이 《세계의 진운》을 떠안고 있음을 선언한다. 《세계의 진운》은 무엇인가? 《자유-인권-법치-시장-공정》의 가치다.

이 가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악(惡)의 권세에 끊임없이 침해받는다. 106년 전엔 《식민주의 침탈》에, 지금은 《극좌 전체주의 폭거》에. 선열들은 《독립 없는 자유》도, 《자유 없는 독립》도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자유 있는 독립》의 고매한 이상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결실했다. 그로부터 77년.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세계의 진운》에 발을 맞추었기에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이었다.

최후 진술에서 드러난 검은 그림자

이 《기적》을 적대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오늘의 주적 《극좌 전체주의 그들》은 누구인가? 《자유-인권-법치-시장》을 저주하는 《홍위병 민주주의 / 사법의 정치화 / 입법부 독재 / 대기업 국유화 / 반(反) 시장 / 친북-친중》 흐름이다.

이 흐름은 검사-행안장관-법무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 위원장들을 줄줄이 탄핵했다. 중요 정책 예산을 0원으로 지웠다. 외국 간첩 처벌 법안을 내쳤다. 국가를 아예 마비시켰다. 검은 그림자 《내란 공작 프레임》이 작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은 말했다. 그것은 《망국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 106년 전처럼 태극기로 온 나라가 물결치게 하자. 탄핵 기각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것이 대한민국 구하는 길이다. ⓒ 서성진 기자

2024년 12월 3일 그는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란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아무도 그의 진의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지지가 17%로 떨어졌다. 그러나 2개월 후엔 50%로 껑충 뛰었다. 왜?

《내란 몰이》가 《내란》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는 《민주당 일각 + 국정원 일각 + 국민의힘 일각》의 《짬짜미-각본-연출》의 산물임이 드러났다.

②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압수-통신 영장을 기각하자 《우리법연구회 부류》가 장악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쇼핑》했다.

③ 《문형배 헌재》는 《인용》을 미리 정해놓은 《폭주 기관차》 같았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이에 국민이 주술(呪術)에서 깨어났다. 2030이, 대학생들이 궐기했다. 모든 게 음모임을 간파했다. "속았구나!" 온몸을 떨었다. 하늘을 우러러 절규했다.

① "사기 탄핵 반대!" "탄핵 무효!" ② "좌파의 국정 발목잡기-입법 횡포-사법부 도구화야말로 헌정 문란!" ③ "STOP THE STEAL!" "중공 드론 간첩 처벌!"

일어서자 자유인들!
④ 자유대한민국 수복! 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기각! 직무 복귀! ⑥ 조기 대선 노(no)! ⑦ 《직업적 탄핵 상습자》들은 사과하라!

응답하라 자유인들.
⑧ 대한민국인가, 반(反) 대한민국인가? ⑨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중민주주의인가? ⑩ 《중공 패권주의 초한전(超限戰)》인가, 자유 한국인들의 《제2의 3.1 운동》인가?

나가자 자유인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2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3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